

杜審言 詩의 시가사적 지위 고찰

崔宇錫*

<목 차>

1. 序言
2. '盛唐之音'의 先河 역할
3. 律詩 格式의 定型化에 공헌
4. 杜甫의 律詩 形成에 영향
5. 結語

1. 序言

杜審言(646?-708)은 初唐 후기에 활약했던 시인으로, 崔融(653-706), 李嶠(645?-714), 蘇味道(648-705) 등과 더불어 이른바 '文章四友'로 불린다.¹⁾ 일반적으로 文章四友 가운데 두심언과 이교의 시가 창작은 다른 두 시인에 비해 더욱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는데, 그 가운데서도 두심언의 시는 가장 훌륭한 것으로 평가 받는다.²⁾ 본고는 이러한 두심언의 시가 창작이 어떠한 성취를 이루었고 中國詩史에서 또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를 고찰 해 보고자 한다.

文章四友는 '初唐四傑' 보다는 시기상 약간 뒤에 활약 했던 문인 집단으로 당시

* 高麗大 講師

- 1) '文章四友'의 '文章'은 '詩歌'를 가리킨다. 唐代에는 '文章'을 습관적으로 '詩歌'로 여기는 경우가 많았으니, 예를 들어, 蘇頌의 <薦西蜀人才疏>에서 "趙葵術數, 李白文章"라 했고, 韓愈의 <薦士>에서 "國朝盛文章, 子昂始高蹈"라 했고, 王昌齡의 <詩格>에서 "夫文章之體, 五言最難, 聲勢沉浮, 讀之不美"라 한 것은 모두 그 좋은 예이다.
- 2) 예를 들어, 郭預衡의 <中國古代文學史>에서는 "在'文章四友'中, 杜審言的成就最高."(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8, 186쪽)라고 평가하였다.

의 宮廷詩壇을 대표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당시의 궁정 시단에서 두심언의 지위가 '四友' 가운데서 가장 낮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文章四友에 대한 당시의 호칭 배열을 통해 알 수 있다.

어려서 李嶠, 崔融, 蘇味道와 더불어 文章四友를 이루었으니, 세상 사람들은 '崔, 李, 蘇, 杜'라 칭하였다.³⁾

그런데 당시 세상 사람들이 '崔, 李, 蘇, 杜'의 순서로 호칭했던 것은, 이 네 시인의 詩文이 당시 궁정 시단에서 점하고 있었던 지위와 영향력에 의해서 결정되었던 것이니,⁴⁾ 즉 당시 궁정 시단에서는 최융의 명성이 가장 컸으며, 이어서 이교와 소미도가 그 영향력을 행사 했으며, 두심언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지위를 점하고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두심언의 누렸던 관직은 '四友' 가운데 가장 낮았으며, 그가 본격적으로 궁정 시인으로 활약한 것은 그의 나이 약 57세 되던 해인 長安 2年(702)부터였다. 게다가 그는 神龍元年(705)에는 張易之 사건으로 2년간 폄적을 당하기도 했으니 그가 궁정 시단에서 활약한 것은 불과 5년도 채 되지 않은 셈이다. 현존하는 그의 시 가운데 奉和應制詩가 7首에 불과해 전체 詩作(43首)의 5분의 1도 안 되는 점 또한 이러한 사실을 지지하고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두심언의 시가 예술 성취가 궁정시인으로서 가장 뒤쳐졌다고 해서 그의 다른 시가의 성취가 다른 세 시인에 비해 모두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아니 오히려 다른 세 시인에 비해 더욱 뛰어난 성과를 올렸던 것이다.

이러한 성과는 현존하는 그의 시작 43首를 검토해 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그의 詩作에는 다양한 제재와 내용이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개성이 뚜렷한 풍격을 표출 하고 있으며, 또한 대부분이 매우 엄격한 律詩의 형식을 취하고 있음을 발견 할 수 있다. 게다가 그의 시는 손자인 杜甫의 시 창작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으니,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하면 그의 시가 창작은 初唐의 시단에서 중요한 지위를 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고는 바로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두심언의

3) 《新唐書·杜審言傳》卷201: “少與李嶠、崔融、蘇味道爲文章四友, 世號崔、李、蘇、杜”

4) 張家壯, <‘文章四友’名稱、名次考辨及其文學意義>: “我們認爲崔、李、蘇、杜’的名次排列乃是依四人之詩文在當時宮廷中之地位及影響而定的。”(《漳州師範學院學報》, 2003年, 第2期, 17쪽), 참조.

시가 창작이 보여주고 있는 시가사적인 의의를 고찰 해 보고자 한다.

2. '盛唐之音'의 先河 역할

두심언의 시가 '盛唐之音'의 先河 역할을 담당했다고 사실은 내용과 풍격 면에서 모두 찾아 볼 수 있다. 먼저 그 내용을 살펴보면, 《全唐詩》에 실려 있는 두심언의 43首 시 가운데 8수만이 응제시이고 나머지는 지극히 개인적인 시인의 감정을 슬회하거나, 산수의 경물을 기행문식으로 묘사하거나, 또는 盛唐의 氣勢와 필적할 만한 邊塞詩를 짓는 등 비교적 다양한 내용을 선보이고 있다. 이러한 내용과 제재가 후세 성당시의 형성에 적지 않게 영향을 주었음은 물론이다.

먼저 두심언 시에서 풍기는 농후한 서정의 색채를 잘 드러낸 <春日京中有懷>를 살펴보자.⁵⁾

今年遊寓獨遊秦
愁思看春不當春
上林苑裏花徒發
細柳營前葉漫新
公子南橋應盡興
將軍西第幾留賓
寄語洛城風日道
明年春色倍還人

올해 타향 벼슬살이 하다가 홀로 秦 땅을 돌아보니
슬픈 생각에 봄을 봐도 봄 같지 않구나
상림원의 꽃은 부질없이 피었고
세류영 앞의 나뭇잎은 공연히 새롭구나
귀공자의 남쪽 다리에선 흥이 다할 것이고
장군의 서쪽 집에선 손님을 몇이나 붙잡을까?
洛陽城으로 편지를 풍경 좋은 길에 부치니
내년 봄 경치는 돌아올 사람에게 두 배는 좋게하리

이것은 약 長安 2年(702) 혹은 그 이듬해에 수도 長安에서 지은 것으로, 洛陽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갈망하는 시인의 정서가 잘 드러나 있다. 봄을 보아도 봄 같지 않다고 하거나, 꽃과 나뭇잎이 부질없이 피었다고 하거나, 또는 제 5, 6구에서 낙

5) 본고에서 인용한 杜審言의 詩와 그 編年 時期는 徐定祥注, 《杜審言詩注》(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2)을 저본으로 삼았음.

양의 정경을 상상을 통해 꺾진하게 그려낸 것 등은 모두 시인의 그리움을 정교하게 형상화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무언가를 그리워하거나 혹은 失意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두심언 抒情述懷의 큰 특색이라 할 수 있으니, 예를 들어 그의 <渡湘江>을 보자.

遲日園林悲昔遊
今春花鳥作邊愁
獨憐京國人南竄
不似湘江水北流

봄 해가 동산 숲 비추니 지난날 노닐었던 일 슬퍼지고
올 봄의 꽃과 새는 변경의 슬픔을 만드는구나
홀로 서을 사람이 남방에 몸 숨김을 불쌍히 여기니
상강의 물이 북으로 흐르는 것과는 같지가 않구나

이것은 시인이 神龍 元年(705)에 張易之 형제와 가까이 지낸 죄목으로 峰州로 폄적 당했을 때 湘江을 지나다가 지은 시이다. 지난날 즐겁게 노닐었던 일은 하나의 그리움으로 변했고, 폄적을 당한 현재의 失意感은 북으로 흐르는 湘江을 통해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이 시는 엄격한 格律을 준수한 七言 絕句로, 특히 그 作法은 南朝의 靡麗한 기풍을 여전히 답습하던 初唐의 수준을 뛰어넘은 것으로 평가 받는다. 《唐詩選脈會通評林》에 “周敬이 이르기를, 陳, 隋 시대에는 靡麗함이 극치를 이루었다. 두심언은 陳의 音調를 다 뛰어넘었다. 예를 들어 ‘遲日園林’ 한 수는 정신연마하고 뜻을 다듬어 별도의 안목을 만들어내었으니 光景을 새롭게 하였다.”⁶⁾ 라는 평이 보이는 것은 그러한 사실을 대변한다. 물론 이러한 새로운 光景이 ‘盛唐之音’에 보다 접근한 것임은 자명하다.

이밖에도 두심언의 시에는 失意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낸 작품이 적지 않다. 예를 들어, 버림 받은 쫓겨난 입을 빌어 자신의 불우한 처지를 슬회한 <賦得妾薄命>, 江陰에서 벼슬하고 있을 때 자신이 처한 상황을 척박한 ‘사막(龍沙)’으로 비유하며 임금을 그리워한 <重九日宴江陰>, 폄적지에서 돌아 갈 수 있기를 침통한 어조로 바라는 <春日懷歸> 등이 모두 그러하다. 이러한 내용은 “명성은 높았지만 운명은 박약했다”⁷⁾ 그의 인생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평탄치

6) 《唐詩選脈會通評林》: “周敬曰, 陳隋靡麗極矣, 必簡翻盡陳調, 如遲日園林一章, 練神修意, 另出手眼, 遂令光景一新.”(《唐詩彙評》, 杭州: 浙江教育出版社, 1995), 123쪽 참조.

7) 宋之間, <祭杜學士審言文>: “名聲高而名薄”(《全唐文》卷241)

않았던 그의 관직 생활과 聖歷 元年(698)과 神龍 元年(705)에 당했던 두 차례의 폼직 등이 그로 하여금 失意의 감정을 적지 않게 풀어내게 만들었던 것이다. 어쨌든 이러한 내용은 應制詩나 詠物詩가 주류를 이루던 初唐의 詩壇에서는 初唐四傑이나 陳子昂 등의 詩作을 제외하고는 좀처럼 접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었다. 두심언 시 속에서 적지 않게 보여 지는 이러한 '抒情述懷'의 내용이 '詩緣情'의 창작이 주류를 이루던 盛唐 詩歌를 위해 先河 역할을 담당 했을 것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추측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두심언의 산수시 <旅寓安南>을 살펴보자.

交趾殊風候	交趾의 기후는 매우 달라
寒遲暖復催	추위는 늦게 오나 따뜻함은 다시 재촉한다
仲冬山果熟	한 겨울에 산과일은 여물고
正月野花開	정월에도 들꽃이 핀다
積雨生昏霧	쌓인 비에 어두운 안개 피어나고
輕霜下震雷	가벼운 서리만이 천둥과 우레 아래 내린다
故鄉踰萬里	고향은 만리나 떨어져 있어
客思倍從來	나그네 상념은 예전의 두 배나 되는구나

이것은 시인이 神龍 元年(705)에 峰州로 폼직 당했을 때 安南(현재의 越南 河內)을 지나다가 지은 시이다. 交趾는 현재 越南의 북부에 위치한다. 시의 마지막 聯에서 나그네의 상념을 토로한 것을 제외하고, 전반에 걸쳐 이국적인 남방의 산수 경물을 輕快하게 묘사 하고 있다.⁸⁾ 이렇듯 남방의 산수 경물을 시속으로 끌어 들인 작품은 이 전에는 중국 詩史에서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던 것이며, 당시 함께 남방으로 폼직 되었던 沈佺期和 宋之問의 산수시 속에서나 처음으로 발견할 수 있다.⁹⁾ 물론 이러한 내용의 산수시가 심전기, 송지문의 산수시와 더불어 후세 山水詩의 창작에 좋은 영양분을 제공했을 것임은 자명하다.

이어서 두심언 산수시중 가장 널리 알려진 <度石門山>을 감상해 보자.

8) 《唐詩鏡》: “卽景自成, 入手輕快”(《唐詩彙評》, 117쪽), 참조.

9) 儲兆文, <論杜審言、沈佺期、宋之問의山水詩>(西安《唐都學刊》, 1999年, 第1期), 31쪽 참조.

石門千仞斷
 迸水落遙空
 道束懸崖半
 橋欹絕澗中
 仰攀人屢息
 直下騎纔通
 泥擁奔蛇徑
 雲埋伏獸叢
 星躔牛斗北
 地脉象牙東
 開塞隨行變
 高深觸望同
 江聲連驟雨
 日氣抱殘虹
 未改朱明律
 先含白露風
 堅貞深不懼
 險澁諒難窮
 有異登臨賞
 徒爲造化功

석문은 천 길이나 깎아 잘렸고
 폭포수 아득한 공중에서 떨어지네
 길은 산기슭 반쯤에 걸려 있고
 다리는 깊은 계곡 속으로 기울어 있네
 우러러 오르다 사람은 여러 번 쉬고
 곧장 내려오니 말 탄이 겨우 통하네
 진흙은 뱀이 길 달리는 것처럼 안기고
 구름은 여러 짐승 숨어 있듯이 매복해 있네
 별의 궤도는 斗牛宿의 북쪽이고
 땅의 맥은 象牙山의 동쪽이라네
 열렸다 막혔다 마음껏 가는 곳마다 변하고
 높고 깊은 곳도 똑같이 다 본다네
 강 소리는 소낙비와 이어지고
 해 기운은 남은 무지개 안고 있네
 여름 계절은 아직 바뀌지 않았는데
 흰 이슬 바람은 먼지를 머금었네
 굳고 끈은 의지는 깊은 곳도 거리까지 얹으나
 생각건대 험하고 편벽한 곳은 다하기 어려우리
 올라가 감상함에 기이함이 있는 것은
 다만 조화옹의 공 때문이로구나

이것은 시인이 현재 浙江省 青田縣에 위치한 石門山을 유람하며 읊은 山水紀行詩이다. 이 시는 전편에 걸쳐 대구의 기법을 운용하며 석문산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그 묘사가 매우 정교한 것이 주목을 끄는데, 특히 폭포수나 높고 험준한 산세를 묘사한 부분은 그 기세가 매우 장엄하다. 이렇듯 장엄한 경물 묘사 기법이 氣象이 드높았던 盛唐 산수시의 형성에 일정부분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다.¹⁰⁾

이 밖에도 두심언에게는 亂石山の 비범한 기세를 紀行詩의 형식으로 묘사한 <南海亂石山作>, 襄陽城에 올라 “楚山은 횡으로 땅을 박차고 나왔고, 漢水는 하

10) 張珠龍, <杜審言詩三題>: “審言의山水風物詩則是以其奇麗壯美的氣象對盛唐山水詩產生了更爲直接的影響.”(《江蘇廣播電視大學學報》, 1996년, 제4기, 23쪽), 참조.

늘과 맞닿아 도네.(楚山橫地出, 漢水接天回)"라고 읊은 <登襄陽城>, 여름날의 "해 기운은 남은 비를 머금고, 짙은 먹구름은 늦은 우뢰를 보내네.(日氣含殘雨, 雲陰送晚雷.)"를 노래한 <夏日過鄭七山齋> 등 약 16首의 산수시가 있다. 물론 이러한 수치는 그 절대치로 보면 그다지 많은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이 수치는 그의 현존하는 전체시 43수의 약 3분의 1을 넘는 분량인 동시에, 초당의 시단에서도 좀처럼 접하기 힘든 분량이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산수시파가 형성되기 이전인 초당의 시단에서 이와 같은 성과를 보인 것은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후세 산수시의 발전도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두심언의 시에서 보이는 邊塞詩의 내용 또한 후세 盛唐詩의 先河라 할 수 있다. 그에게는 <贈蘇味道>, <贈蘇綰書記>, <送崔融> 등 모두 5수의 변새시가 현존한다. 이 수량은 그리 많은 것은 못 된다. 그러나 初唐의 시단에서 四傑이 주로 악부시의 형식으로 약 40여 편의 변새시를 창작한 것이 가장 두드러진 성과이고, 崔融과 陳子昂만이 직접 종군 하여 몇몇의 변새시를 창작한 것이 전부였던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결코 소홀히 볼 수만은 없다. 그의 변새시 가운데 <贈蘇味道>를 예로 들어 살펴보자.

北地寒應苦
南庭戍未歸
邊聲亂羌笛
朔氣卷戎衣
雨雪關山暗
風霜草木稀
胡兵戰欲盡
漢卒尙重圍
雲淨妖星落
秋深塞馬肥
據鞍雄劍動
挿筆羽書飛
輿駕還京邑
朋遊滿帝畿

북쪽 땅 추위는 응당 고생스러울런만
南庭의 수자리는 돌아오지 않네
변방의 소리는 오랑캐 피리에 어지럽고
북방의 기운은 오랑캐 옷을 말아 올리네
비와 눈에 관새와 산은 어둡고
바람과 서리에 초목은 성기네
오랑캐 군사는 전쟁 끝내려 하나
우리 병사는 여전히 겹겹이 포위해 있네
구름 깨끗한데 요사스런 별은 떨어지고
가을은 깊어 변새의 말은 살찌네
말안장에 앉아 용검을 휘두르고
붓 놀리며 격문을 날리네
수레 몰아 수도로 돌아오면
친구는 경성 일대에 가득하리

方期來獻凱
歌舞共春暉

바야흐로 개선해 와서
가무와 함께 봄 빛 누릴 수 있길 바라노라

이 시는 高宗 調露 元年(679)에 蘇味道가 從軍하게 되었을 때 지은 것이다. 시는 전반에 걸쳐 소미도가 날씨는 춥고 험악한 북방의 변새로 종군하여 雄偉한 자태로 오랑캐를 일망타진하는 상상을 한 뒤, 조속히 개선해 와서 다시 함께 봄빛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그려내었다. '建功立業'의 정신을 드러내는 것은 初唐 변새시의 한 특징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변새시가 아직은 흥성하지 못한 初唐의 시단에 활력소가 되었음은 물론이요, 盛唐 邊塞詩派 형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음은 자명하다. 특히 이 시의 곳곳에서 보이는 '雄渾'한 기세는¹¹⁾ 이른바 '盛唐氣象'의 先聲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사실 두심언의 시는 그 내용 뿐 만 아니라, 풍격 면에서도 盛唐의 先河 역할 해 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두심언은 초당 시기에도 여전히 상존해 있던 南朝 시대의 靡麗한 풍격에서 벗어나 盛唐 詩風에 보다 접근한 雄渾하며 순박하고 敦厚한 이른바 '渾厚'한 풍격을 적지 않게 창작했던 것이다. 예를 들어 두심언의 <登襄陽城>은 雄渾한 풍격이 잘 드러난 작품이다.

旅客三秋至
層城四望開
楚山橫地出
漢水接天回
冠蓋非新里
章華卽舊臺
習池風景異
歸路滿塵埃

떠도는 나그네 늦가을에 이르니
겹쌓인 성에서 사방을 확 트이게 바라보네
楚山은 횡으로 땅을 박차고 나왔고
漢水는 하늘과 맞닿아 도는구나
冠蓋리는 새로운 마을 아니고
章華臺는 옛 누대라네
習池의 풍경 특이한데
돌아오는 길엔 먼지 가득하구나

이 시는 시인이 평적지 峯州를 향해 가던 도중 현재 湖北省 襄樊市에 해당하는 襄陽省을 지나며 지은 산수시이다. 시는 단순히 늦가을 성곽에 올라 확 트인 사방

11) 《唐詩選脈會通評林》: “意調雄渾, 爲國家邊土生色”(《唐詩彙評》, 121쪽), 참조.

의 풍격을 묘사하는 것에 그치는 듯 하나, 마지막 聯에서 낮은 풍경 속에서 느끼는 말 못할 감회를 먼지만 가득한 길로 암시하고 있다. 시는 전반에 걸쳐 정교한 대구를 사용하고 있지만 화려한 수식이 수식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시에서 풍기는 雄偉한 風格이 주목을 끄는데, 특히 頷聯에서 “楚山은 황으로 땅을 박차고 나왔고, 漢水는 하늘과 맞닿아 도는구나”라고 읊은 부분은 그 기상이 매우 雄渾하다. 이 시에 대해 《唐詩分類繩尺》은 “氣象이 雄偉하고 詩語에는 感慨가 있다. 실로 杜甫의 詩法이로다.”¹²⁾라고 평한 것은 수궁이 간다.

이어서 두심언의 변새시 <贈蘇綰書記>를 감상해 보자.

知君書記本翩翩
爲許從戎赴朔邊
紅粉樓中應計日
燕支山下莫經年

그대 蘇綰書記는 본래 문장이 뛰어난 것 알고 있는데
어찌서 종군하여 변방으로 가려하는가?
붉은 단장한 여인은 누각에서 날짜를 셀 터이니
연지산 아래서 오래 머물지는 말게나

이것은 변방으로 종군하는 蘇味道에게 보낸 시로, 기다리는 여인의 형상을 통해 변방에서 빨리 돌아 올 것을 기원하고 있다. 이 시는 엄격한 격률을 잘 지킨 七言律詩이다. 시에서는 화려한 수식이나 조탁은 찾아보기 힘들고, 대신 시인의 진솔한 감정이 순박한 시어로 잘 표현되어 있다. 이렇듯 순박한 면모는 高華한 풍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던 초당의 궁정시와는 크게 다른 것으로, ‘盛唐之音’에 보다 근접한 것임은 물론이다. 《唐風定》에서 이 시에 대해 “初唐의 화려한 풍격과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이미 盛唐과 中唐의 교묘한 경계를 연 것이다”라고 한 것은 그러한 점을 잘 설명해 준다.

사실 두심언의 시에는 순박하며 敦厚한 풍격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는데, 특히 그가 궁정시단의 테두리를 벗어나 창작한 시에서는 이러한 색채가 더욱 확연하다. 이에 관해 Stephen Owen은 “두심언의 폼적시를 그의 궁정시와 분리하여 설정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곧 소박성의 강화로 이미 다른 궁정시인의 작품과 외견상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¹³⁾라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두심언의 <送崔融>은

12) 《唐詩分類繩尺》: “氣象雄偉, 詞語感慨, 實爲子美之法.”(《唐詩彙評》, 117쪽)

13) Stephen Owen 著, 張世厚譯, 《초당시》(大邱: 中文出版社, 2000), 416쪽.

“순박하며(渾) 가파르다(峭)”¹⁴라는 평을 받았고, <秋夜宴臨津鄭明府宅>은 “시어의 흐름이 매우 순박하다(渾)”¹⁵라는 평을 받았으며, <度石門山>은 “音調가 지극히 순박하며 敦厚하여 밝게 울린다”¹⁶라는 평가를 받았으니, 실로 두심언의 시는 “순박하며 돈후함(渾厚)에 남음이 있다”¹⁷라고 할 만하다. 그런데 이러한 풍격은 南朝의 靡麗함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던 初唐의 詩壇에 새로운 활력소를 제공해 주었음은 물론이요, 후세 ‘盛唐之音’의 형성에서도 적지 않게 공헌한 것으로 볼 수 있으니, 두심언의 시는 내용 면에서나 혹은 풍격 면에서 모두 盛唐 시의 주요한 先河가 되어 준 것으로 파악 할 수 있다.

3. 律詩 格式의 定型化에 공헌

역대로 唐代 律詩의 格式은 沈佺期和 宋之問의 손에 의해서 완성 된 것으로 여겨진다. 예를 들어, 嚴羽(1290-1364)가 <滄浪詩話>에서 “風雅頌이 이미 망한 후에, 한번 변하여 離騷가 되었고, 다시 변하여 西漢의 五言詩가 되었다가, 세 번째 변하여 歌行雜體가 되었으며, 네 번째 변하여 沈·宋의 律詩가 되었다”¹⁸라고 언급한 바와 같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율시의 격식이 온전히 심전기와 송지문이라는 두 시인의 능력에 의해서만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율시는 南朝의 태동기를 거쳐 初唐에 이르러 唐太宗, 初唐四傑, 文章四友 등의 노력을 통해 점진적으로 완성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두심언이 律詩 格式의 定型化에 공헌 했던 역할은 심전기와 송지문에 버금가는 것이었으니, 이는 중국 律詩史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14) 《唐詩歸》: “八句渾而峭.”(《唐詩彙評》, 117쪽)

15) 《唐詩矩》: “感人見招, 無非寓己無聊之況, 然語脈深渾.”(《唐詩彙評》, 115쪽), 참조.

16) 《唐詩選脈會通評林》: “音調整厚而明響.”(《唐詩彙評》, 120쪽)

17) 《詩境總論》: “杜審言渾厚有餘.”(丁福保輯, 《歷代詩話續編》, 北京: 中華書局, 1997), 1441쪽.

18) 嚴羽著, 郭紹虞校釋, 《滄浪詩話·詩體》: “風雅頌既亡, 一變而爲離騷, 再變而爲西漢五言, 三變而爲歌行雜體, 四變而爲沈宋律詩.”(臺北: 里仁書局, 1987, 48쪽.)

먼저 항상 두십언의 대표 詩作으로 꼽히는 <和晉陵陸丞早春游望>을 통해 그의 율시 창작의 일면을 살펴보자.

獨有宦遊人	홀로 지방관으로 떠도는 신세여서
偏驚物候新	유독이 사물과 기후의 새로움에 놀라네
雲霞出海曙	구름과 놀 바다에서 피어오르는 새벽
梅柳渡江春	매화와 버들이 강을 건너는 봄
淑氣催黃鳥	맑은 기운은 피꼬리를 재촉하고
晴光轉綠蘋	갠 빛은 푸른 마름풀 위에 번득이네
忽聞歌古調	홀연 고아한 노래 소리 들으니
歸思欲霑巾	돌아가고픈 생각에 수건 적시려 하네

이것은 두십언이 江陰에서 任職하고 있을 때, 동료 陸丞이 보내 온 시 <早春遊望>에 唱和한 시이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예민하게 느껴지는 江南의 봄 풍경을 통해 잘 부각되어 있다. 이 시의 仄仄 운용과 압운 상황은 다음과 같다.

● 仄仄平平
 平平仄仄平
 平平仄仄仄
 平仄仄平平
 仄仄平平仄
 平平仄仄平
 仄平平仄仄
 平仄仄仄平

上平聲 '眞'字 押韻을 했으며, '粘對'의 규칙도 엄격히 잘 지켰음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특히 頷聯과 頸聯에선 '出, 渡, 催, 轉'이라는 절묘한 동사를 연달아 사용

하며¹⁹⁾ 완벽한 대구를 이루고 있으니, 이 시는 모든 면에서 율시의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두심언의 현존하는 43수의 시 가운데 五言 古詩 <南海亂石山作>, <送和西蕃使> 2수를 제외하고 41수가 모두 新體詩에 해당한다. 이 중 五言 律詩는 28首, 七言 律詩는 3首, 五言 排律은 7首, 七言 絶句는 3首가 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두심언의 오언 율시 28수는 단 한 수도 빼 놓지 않고 위에서 예로 든 <和晉陵陸丞早春遊望>처럼 엄격한 格律을 잘 지키고 있다는 점이다. 즉 두심언의 오언 팔구 율시 28수는 모두 粘對의 규칙에 부합하여 100%의 부합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성과는 初唐의 詩壇에선 극히 찾아보기 힘든 일이었으니, 이는 初唐 주요 작가의 오언 율시 창작 상황을 보여주는 다음의 도표를²⁰⁾ 통해 살펴 볼 수 있다.

律詩 格式의 주요한 지표인 '粘對'의 부합률이 100%에 이르는 것은 두심언을 제외하곤 楊炯이 있기는 하지만 그의 율시 총수는 두심언의 절반에 불과 할 뿐이다. 또한 율시를 완성 시킨 것으로 인정받는 심전기와 송지문의 율시 총수는 두심언의 그것에 비해 훨씬 많기는 하여도 그 부합률이 100%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宋人 陳振孫이 "두심언의 시는 비록 많지는 않아도 句式와 格律이 지극히 엄격하여 하나도 失粘한 것이 없다"²¹⁾라고 언급한 것은 바로 이러한 점을 잘 반영한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두심언의 오언 율시는 예술 면에서도 當代 최고 수준이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明代 胡應麟이 두심언의 <和晉陵陸丞早春遊望>, <秋夜宴臨津鄭明府宅>, <登襄陽城>을 陳子昂의 <次樂鄉>, 沈佺期的 <夜宿七盤嶺>, 宋之間의 <扈從登封> 등과 함께 오언 율시를 배우는 初學者들이 반드시 먼저 배워야 할 '入門' 詩로 삼았으며, 아울러 그의 오언율시를 "初, 盛唐 사이의 으뜸"으로

19) 《詩境淺說》: "而中四句'出'字、'渡'字、'崔'字、'轉'字, 用字之妙, 可爲詩眼"(《唐詩彙評》, 115쪽), 참조.

20) 이 도표는 王運熙 <寒山子詩歌의 創作時代>(王氏《漢魏六朝唐代文學論叢》,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1) 210-214쪽에서 인용하였음.

21) 陳振孫, 《直齋書錄解題》卷19: "審言詩雖不多, 句律極嚴, 無一失粘者."(《唐人律詩箋注集評》, 杭州: 浙江古籍出版社, 2003), 11쪽.

作者	平聲韻 5言8句 詩 總數	粘式, 對式 모두 부합하는 시(점유율%)	粘式만 부합하고 對式에는 부합하지 않는 시	粘式, 對式 모두 부합 않는 시
李世民	40	8 (20%)	1	31
褚亮	6	0 (0%)	0	6
孫孝孫	4	0 (0%)	2	2
楊師道	4	1 (25%)	1	2
虞世南	9	0 (0%)	3	6
王績	8	3 (37%)	0	5
許敬宗	7	1 (14%)	1	5
上官儀	6	0 (0%)	1	5
李百藥	11	2 (18%)	2	7
盧照鄰	33	6 (18%)	1	26
駱賓王	70	24 (34%)	6	40
王勃	31	8 (26%)	1	22
楊炯	14	14 (100%)	0	0
李嶠	161	149 (93%)	4	8
杜審言	28	28 (100%)	0	0
蘇味道	9	4 (44%)	0	5
崔融	8	6 (75%)	2	0
陳子昂	31	9 (29%)	1	21
宋之問	82	78 (95%)	1	3
沈佺期	64	62 (97%)	1	1

추켜세운 것은 그러한 점을 잘 대변한다.²²⁾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하면 許學夷가 “五言律體는 실로 두심언, 심진기, 송지문에게서 완성되었다. 그러나 후세 사람들은 단지 심진기와 송지문에게서 완성 되었다고만 말하니 어찌 된 것인가?”라고 지적한 것은 충분히 수궁이 간다.

오언 율시 뿐 만 아니다. 두심언은 칠언 율시 창작 면에서도 중요한 성과를 올

22) 胡應麟, 《詩藪》: “初唐五言律, 杜審言 <早春遊望>, <秋夜宴臨>, <登襄陽城>, 陳子昂 <次樂鄉>, 沈佺期 <夜宿七盤嶺>, 宋之問 <扈從登封>, 李嶠 <侍宴甘露殿>, 蘇頌 <驪山應制>, 孫逖 <宿雲門寺>, 皆氣象冠裳, 句格鴻麗, 初學必從此入門, 庶不落小家窠臼。” … “初、盛間 … 五言律, 杜審言爲冠, 七言律, 沈佺期爲冠, 排律, 宋之問爲冠。”(臺北 廣文書局, 1973, 210-211쪽, 241쪽). 참조.

렸다. 그에게는 모두 3수의 칠언 율시가 있는데, 비록 그 수량이 많지는 않아도 초당의 칠언 율시 형성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먼저 그의 <大酺>를 예로 들어 살펴보자.

昆 _下 陵震澤九州 [◎] 通	昆陵의 太湖는 九州와 통하고
士 _仄 女歡娛萬國 [◎] 同	백성들의 즐거움은 온 나라가 똑 같구나
伐鼓撞鐘驚海上	북 치고 종 때리니 바다가 놀라고
新妝袿服照江東 [◎]	새 단장 눈부신 복장은 江東을 비추네
梅花落處疑殘雪	매화 꽃 지는 곳엔 눈 남았을까 의심하고
柳葉開時任好風 [◎]	버들 잎 싹틀 무렵엔 좋은 바람 맞네
火德雲官逢道泰	火德 조정의 문무백관은 태평성세 만났으니
天長日久屬年 [◎] 豐	하늘과 해 영원토록 풍년 들리라

天授 元年(690)에 武後는 唐을 周로 개칭하는데, 火德은 周를 상징한다. 시인이 江陰에서 任職하고 있을 때 지은 일종의 연회시로, 연회의 성대함과 흥겨움을 드러낸 후 태평성세를 頌德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七言 八句의 형식으로 엄격하게 '粘對'를 준수하고 있으며, 上平聲 '東韻'으로 押韻했다. 특히 각 聯마다 모두 절묘하게 대구를 이루고 있어 七言 律詩의 모범을 보여 주고 있다. 이 때문에 《唐七律選》에서는 이 시를 "칠언 율시의 正體"²³⁾로 파악했던 것이다.

이 밖에 두심언의 나머지 칠언 율시 <春日京中有懷>, <守歲侍宴應制> 역시 엄격한 율시의 격식을 준수하고 있다. 특히 앞 절에서 이미 살펴 본 <春日京中有懷>는 그 창작기법이 매우 뛰어나 후세의 전범이 되어주고 있다. 이에 관해서 청대 清代 金聖嘆은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當時에 처음으로 律詩가 생겼기에 사람들은 어떻게 지어야 할지를 몰랐다. 그를 볼 것

23) 《唐七律選》: “毛奇齡云, 此七言正體也.”(《唐詩彙評》, 119쪽)

같으며 맨 처음 좋은 숨씨를 내어, 허공을 가르는 이채로운 창작력을 불러 일으켜 호탕하게 平起式으로 두 解를 전개 했다. 前解에 이르길, 今年不當春, …… 이리하여 一代 律詩의 前解 定式이 된 것이다. 오호라! 어찌 위대하지 아니한가! …… 後解에서 이르기를, 明年倍還春, …… 이리하여 또 律詩 後解의 定式이 되었다. 이것은 진정 시대를 뛰어넘는 탁월한 奇事이다.²⁴⁾

칠언 율시는 初唐의 詩壇에서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던 詩體이다. 四傑은 단 한 수의 칠언 율시도 창작하지 않았으며, 崔融과 蘇味道가 각각 1수, 심전기는 4수, 송지문은 8수의 칠언율시를 창작했던 것이 당시의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두십언의 칠언 율시는 비록 3수 밖에는 되지 않지만 그 격식의 엄정함이나 높은 예술 성취는 마땅히 높게 평가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胡應麟이 “唐代的 칠언 율시는 두십언과 심전기로부터 처음으로 공교하게 치밀해졌다”²⁵⁾라고 한 것은 타당한 평가이다.

이 밖에도 두십언은 絶句와 排律의 격식 정형화에 많은 공헌을 했다. 예를 들어, 앞 절에서 이미 살펴 본 그의 七言 絶句 <贈蘇綰書記>, <渡湘江> 와 <戲贈趙使君美人>은 모두 엄격한 對句와 粘對를 잘 준수 하여 絶句 격식의 정형화에 앞장섰던 것이다. 胡震亨이 “七言은 梁, 陳에서 처음으로 변했기에 음률은 조화롭지 않고 훌륭한 풍도는 아직 부족했다. 오로지 두십언의 <贈蘇綰書記>, <渡湘江> 2首만이 結句가 대구가 이루고, 공교함과 치밀함이 자연스러워 風味를 움켜질 만하다”²⁶⁾라고 한 것은 그러한 점을 잘 대변한다. 이 밖에 두십언에게는 <贈蘇味道>, <贈崔融二十韻>, <春日江中遊望> 등 7首의 排律詩가 있는데, 이것들 역시 엄격한 격률을 잘 준수하여 후세 배율시 창작에 좋은 선례가 되어 주었다.

이상과 같이 두십언은 오언 율시, 칠언 율시 뿐만 아니라 絶句, 排律詩 方面에서도 훌륭한 성과를 이루어 내어, 율시의 격식이 初唐의 詩壇에서 定型化를 이루는

24) 金聖嘆, 《貫華堂選批唐才子詩》: “當時初有律詩, 人都未知云何. 看他爲頭先出好手, 盤空發起異樣才思, 浩浩落落, 平開二解. 前解曰, 今年不當春, … 於是遂爲一代律詩前解之定式. 嗚呼, 豈不偉哉. … 後解曰, 明年倍還春, … 於是遂爲律詩後解之定式. 斯真卓爾草代之奇事也.”(陳德芳校点, 《金聖嘆評唐詩全編》, 成都: 四川文藝出版社, 1999), 5-6쪽.

25) 胡應麟, 《詩藪》: “唐七言律自杜審言沈佺期首創工密.”(262쪽)

26) 胡震亨, 《唐音癸籤》卷10: “七言初變梁、陳, 音律未諧, 韻度尚乏. 惟杜審言<渡湘江>, <贈蘇綰>二首, 結皆作對, 而工緻天然, 風味可掬.”(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1), 100쪽.

데 커다란 공헌을 했던 것이다. 다만 그의 41수의 율시 작품이 심전기와 송지문의 작품이 각각 110여 편이 넘는 것에 비해서 훨씬 적은 것이고, 또한 오언 절구를 창작하지 않았던 점 등으로 인해 율시의 격식을 완성한 시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4. 杜甫 律詩 형성에 영향

역대로 杜甫 시의 淵源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이 있다. 사실 “두보 시는 한 글자도 來源이 없는 것이 없다”²⁷⁾라는 말이 있듯이 그 연원의 폭은 매우 넓다. 예들 들어, 杜詩의 精神은 《詩經·小雅》에서 유래하고, 五言 古詩는 謝靈運, 王粲 詩와 漢魏 民歌 등에서 유래하며, 七言 古詩는 鮑照 시 등에서 유래한다는 인식이 그러하다. 그런데 율시 방면에 있어서 두심언은 심전기, 송지문 등과 더불어 자신의 孫子인 두보가 ‘詩聖’의 지위까지 오르도록 하는데 영향을 주었으니, 두심언의 율시는 律詩史에서도 그 지위가 자못 크다 하겠다.

먼저 두심언과 두보의 실제 詩作을 통해 그 영향 관계의 一面을 살펴보자. 다음은 두심언의 시이다.

〈夏日過鄭七山齋(여름에 정씨택 일곱째의 산에 있는 서재를 지나다)〉

共有樽中好	술잔 속의 즐거움 함께 하고
言尋谷口來	골짜기 입구 찾아왔네
薜蘿山逕入	덩굴 산의 좁은 길로 들어서니
荷芰水亭開	연꽃은 물 속 정자에 피어있네
日氣含殘雨	해 기운은 남은 비 머금었는데
雲陰送晚雷	먹구름은 저녁 우레 보내네
洛陽鐘鼓至	낙양의 종소리 북소리 이르니
車馬繫遲回	수레와 말 묶인 듯 느릿느릿 나아가지 못하네

27) 元好問, 〈杜詩學引〉, “杜詩爲無一字無來處”(《杜詩詳注》, 臺北 里仁書局, 1980, 2252쪽.)

이어서 아래의 두보 시를 감상해 보자.

<陪諸貴公子丈八溝攜妓納涼晚際遇雨(여러 귀공자를 모시고 장팔구에서 기녀들과 더불어 더위를 식히다가 저녁이 되어 비를 만나다)>其一

落日放船好	떨어지는 해에 배 띄우기 좋은데
輕風生浪遲	가벼운 바람 물결 일으키는 것이 더디다
竹深留客處	대나무는 손님 머물게 하는 곳에서 깊고
荷淨納涼時	연꽃은 더위를 식히는 때에 깨끗하다
公子調冰水	공자는 빙수를 조리하고
佳人雪藕絲	미인은 연뿌리 실을 씻는데
片雲頭上黑	조각구름 머리 위에서 검어지니
應是雨催詩	의당 비가 시를 재촉하는 것이리라

두 시 모두 平起式의 오언 율시로 粘對의 규율을 잘 준수했다. 두심언의 시는 동료의 산 서재를 지나며 보고 느낀 경물과 감정을 묘사하였고, 두보의 시는 연회 중에 보고 느낀 경물과 감정을 묘사하고 있다. 그런데 두 시 모두 여름을 시간적 배경으로 했고, 경물의 묘사 또한 清新한 점이 매우 흡사하다. 특히 첫 구절에 두 시 모두 '好'字를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頷聯에서 두심언은 "荷芰水亭開"라고 하고 두보는 "荷淨納涼時"라 하여 둘 모두 연꽃을 묘사했으며, 또한 후반부에서 비가 올 것 같은 짙은 먹구름을 묘사한 부분 역시 매우 흡사하다. 이런 점을 감안 하면 두보의 시는 두심언의 것을 모태로 삼아 지은 것임을 엿 볼 수 있다. 近人 易孺가 "그리고 더욱이 <夏日過鄭七山齋> 한 수는 충분히 '落日放船好' 한 수 시의 鼻祖 모형으로 삼을 수 있다"²⁸⁾라고 한 것은 수공이 간다.

두심언과 두보 시의 영향 관계에 대해 역대로 많은 평자들이 의견을 내놓았다. 그 중 宋代 楊萬리는 '詩句'의 유사점을 들어 그 영향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지금 두심언의 시를 보면, '牽風紫蔓長(<和韋承慶遊義陽公主山池>其二)'은 곧 '水荇牽風翠帶長(두보, <曲江對雨>)'의 구절이요, '鶴子曳童衣(<和韋承慶過義陽公主山池>其四)'는

28) 易孺, <杜審言集跋>: "而彌以<夏日過鄭七山齋>一章之足以爲'落日放船好'一詩之祖范也。"(徐定祥, <杜審言詩注>附錄, 58쪽 재인용)

곧 ‘儒衣山鳥怪(두보, <送楊六判官使西蕃>)’의 구절이요, ‘雲陰送晚雷(夏日過鄭七山齋)’는 곧 ‘雷聲忽送千峰雨(두보, <卽事>)’의 구절이요, ‘風光新柳報, 宴賞落花催(宿羽亭侍宴應制)’는 곧 ‘星霜去鳥變, 身世白駒催(두보, <秋日荊南述懷三十韻>)’의 구절이다. 조부와 손자의 모습이 비슷한 것은 일부러 그런 것인가? 혹은 우연인가는 나는 모르겠다.²⁹⁾

한편 宋代의 王得臣은 ‘시어 맥락(語脈)’의 유사성에 근거하여 그 영향 관계를 언급했다.

두심언은 두보의 조부이다. 則天武後 시기에 시로써 이름을 떨치며, 송지문과 창화했다. 시에서 “縉霧青條弱, 牽風紫蔓長(〈和韋承慶過義陽公主山池〉其二)”라 했고, 또 “寄語洛城風月, 道明年春色倍還人.(〈春日京中有懷〉)”라고 했다. 두보는 “林花帶雨胭脂落, 水荇牽風翠帶長.(〈曲江對雨〉)”라 했고, 또 “傳語風光共流轉, 暫時相賞莫相違.(〈曲江〉其二)”라고 했다. 비록 그 뜻을 모방하지는 않았지만 시어의 맥락에는 대체로 家風이 있다.³⁰⁾

또한 黃庭堅은 “두보의 詩法은 두심언에게서 나왔다”³¹⁾라고 하여, ‘詩法’마저도 그 영향 관계가 있음을 설명했으니, 두보가 두심언에게 받은 영향은 적지 않았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게다가 胡應麟은 律詩의 계승과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初唐에는 칠언 율시가 없었으며, 오언 율시도 역시 뛰어난 것이 없었다. 두 詩體의 교묘함은 두심언이 실로 처음으로 노래했다. 오언에는 “行止皆無地(〈秋夜宴臨津鄭明府宅〉)”, ‘獨有宦遊人(〈和晉陵陸丞早春遊望〉)’이 있고, 배울에는 ‘六位乾坤動(〈和李大夫嗣真奉使存撫河東〉)’, ‘北地寒應苦(〈贈蘇味道〉)’가 있으며, 칠언에는 ‘季冬除夜(〈守歲侍宴應制〉)’, ‘毘陵震澤(〈大酺〉)’이 있는데, 모두 지극히 高華하고 웅장하며 엄격하다. 두보가 이어서 흥기시켜 百代의 모범이 된 것에는 그 來源이 있는 것이다.³²⁾

29) 楊萬里, <杜必簡詩集序>: “今觀必簡之詩, 若牽風紫蔓長, 卽水荇牽風翠帶長之句也. 若鶴子曳童衣, 卽儒衣山鳥怪之句也. 若雲陰送晚雷, 卽雷聲忽送千峰雨之句也. 若風光新柳報, 宴賞落花催, 卽‘星霜去鳥變, 身世白駒催’之句也. 予不知祖孫之相似其有意乎, 抑亦偶然乎.”(《杜審言詩注》, 59쪽 재인용)

30) 王得臣, <歷代詩評摘要>: “杜審言, 子美之祖也. 則天時以詩擅名, 與宋之間相唱和. 有縉霧青條弱, 牽風紫蔓長’又‘寄語洛城風月, 明年春色倍還人’子美‘林花帶雨胭脂落, 水荇牽風翠帶長’又云‘傳語風光共流轉, 暫時相賞莫相違’雖不襲取其意, 而語脉盖有家風矣.”(《杜審言詩注》, 59쪽 재인용)

31) 陳師道, <後山詩話>: “黃魯直云, 杜之詩法出審言.”(《歷代詩話》, 臺北 藝文印書館, 1991, 182쪽)

실제로 두보는 두심언이 가장 능했던 오언 율시 방면에서 커다란 성취를 이룬다. 두보는 약 그의 <望岳>, <月夜>, <春望>, <登岳陽樓> 등이 후세 오언 율시의 전범과 같은 작품이라는 점은 그러한 사실을 잘 증명한다. 더욱이 初唐의 詩壇에서 “두심언이 실로 처음으로 노래했던(杜審言實爲首倡)” 칠언 율시방면에서의 두보의 성취는 더욱 두드러진다. 두보가 약 160여 수의 칠언 율시를 창작했고, <登高>와 같은 작품이 “古詩 칠언 율시의 第一”로 평가 받는 것은 모두 그 좋은 예이다. 사실 칠언 율시는 두보 이전만 해도 그리 각광 받는 시가 형식이 아니었는데, 두보에 이르러 비로소 가장 눈부신 성취를 이루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배울 방면에서도 그 영향 관계를 살필 수 있으니, 무려 40韻에 달하는 두심언의 <和李大夫嗣真奉使存撫河東>에 대해 《唐詩援》은 “배율은 두보에 이르러 아득한 대에서 배를 띄우는 것 같아 무수히 기괴하여 단서를 잡을 수가 없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시에서 濫觴하고 있다”³³⁾라고 한 바와 같다.

이상과 같이 두보는 오언, 칠언 율시, 배율 등에서 모두 두심언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음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두보가 중국 詩歌史에서 ‘詩聖’으로 추앙 받는 것이 주로 그가 律詩 방면에서 이룩해낸 위대한 예술 성취로 인한 것임을 감안하면, 두보에게 율시 창작의 ‘앞선 모범(祖范)’을 선보여 주었던 두심언의 지위는 律詩史에서 마땅히 높게 평가해야 할 것이다.

5. 結 語

두심언이 ‘文章四友’로 불리며 주로 초당의 궁정 시단에서 이름을 떨치기는 했어도, 당시 세상 사람들이 ‘崔, 李, 蘇, 杜’의 순서로 호칭하며 두심언을 가장 마지막에 부른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두심언의 성취는 궁정 시단에서는 상대적으로 낮

32) 胡應麟, 《詩藪》: “初唐無七言, 五言亦未超然 二體之妙, 杜審言實爲首倡 五言則行止皆無地, ‘獨有宦遊人’, 排律則六位乾坤動, ‘北地寒應苦, 七言則季冬除夜’, ‘毘陵震澤’, 皆極高華雄整, 皆極高華雄整. 少陵繼起, 百代楷模, 有自來矣.”(214-215쪽.)

33) 《唐詩援》: “排律至老杜如泛滄溟, 千奇萬怪, 不可端倪, 然實濫觴於此.”(《唐詩評》, 122쪽 재인용)

았다. 그러나 중국 詩史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다시 평가해보면 두심언의 시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중국 시가의 발전을 위해 많은 공헌을 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두심언의 시는 그 내용과 풍격상 이미 初唐의 테두리를 벗어나 보다 盛唐에 근접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즉 두심언의 시는 그 대부분이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을 술회하거나, 산수의 경물을 기행문식으로 묘사하거나, 혹은 盛唐의 氣勢와 필적할 만한 邊塞詩를 짓는 등 그 제재와 내용 면에서 盛唐 詩歌의 先河를 형성했던 것이다. 게다가 두심언은 초당 시기에도 여전히 상존해 있던 南朝시대의 靡麗한 풍격에서 벗어나 盛唐 詩風에 보다 접근한 이른바 ‘渾厚한 풍격을 형성하기도 했던 것이다. 다시 말해 두심언의 시는 그 내용과 풍격 면에서 모두 詩國의 꽃인 ‘盛唐之音’이 滿開하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다.

또한 두심언은 律詩의 格式이 定型化 되는데 크게 일조했다. 일반적으로 율시는 심전기와 송지문의 손에 의해서 완성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율시의 완성이 온전히 이 두 시인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으니, 두심언은 이 두 시인 보다 약간 앞서 오언, 칠언 율시, 배율, 절구 등의 방면에서 모두 탁월한 성과를 올리며 율시의 정형화에 큰 기여를 했던 것이다. 율시의 탄생은 중국 詩歌史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게 해준 매우 획기적인 사건이었던 것만큼, 율시의 완성에 크게 기여한 두심언의 시작 활동은 마땅히 높게 평가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두심언이 두보의 율시 형성에 ‘앞선 모범(祖范)’ 역할을 해준 것 역시 간과 할 수 없다. 즉 “조부와 손자의 모습이 비슷한 것은 일부러 그런 것인가? 혹은 우연인가는 모르겠지만(予不知祖孫之相似其有意乎, 抑亦偶然乎)”, 두보는 확실히 ‘詩句’, ‘詩法’, ‘시어의 맥락(語脈)’ 등의 측면에서 모두 조부인 두심언의 시를 그 모범으로 삼았던 것이다. 이와 같이 두심언의 시는 내용과 풍격 면에서는 이미 盛唐의 기풍을 열었고, 형식 면에서는 정교하며 모범적인 율시를 창작하여 율시의 격식이 정형화되는 크게 앞장섰으며, 손자인 두보가 율시의 창작을 통해 ‘詩聖’의 지위에 오르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결국 두심언의 시는 詩歌史의 거시적인 안목에서 볼 때, 결코 소홀히 넘겨서는 안 될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參考文獻>

- 杜曉勤, 《齊梁詩歌向盛唐詩歌的嬗變》, 北京大學博士學位論文, 1995.
- 丁福保輯, 《歷代詩話續編》, 北京: 中華書局, 1997, 1441 等.
- 何文煥訂, 《歷代詩話》, 臺北: 藝文印書館, 1991, 182 等.
- 徐定祥注, 《杜審言詩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2.
- 陳伯海, 《唐詩彙評》, 杭州: 浙江教育出版社, 1995.
- Stephen Owen 著, 張世厚譯, 《초당시》, 大邱: 中文出版社, 2000.
- 陳增杰, 《唐人律詩箋注集評》, 杭州: 浙江古籍出版社, 2003.
- 胡應麟, 《詩藪》, 臺北: 廣文書局, 1973.
- 陳德芳校点, 《金聖嘆評唐詩全編》, 成都: 四川文藝出版社, 1999.
- 胡震亨, 《唐音癸籤》,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1.
- 仇兆鰲, 《杜詩詳注》, 臺北: 里仁書局, 1980.
- 金啓華, 《杜甫詩論叢》,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5.
- 聶永華, 《初唐宮廷詩風流變考論》,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2.
- 張家壯, <‘文章四友’名稱、名次考辨及其文學意義>, 《漳州師範學院學報》, 2003年, 第2期
- 儲兆文, <論杜審言、沈佺期、宋之間的山水詩>, 《唐都學刊》, 1999年, 第1期
- 張珠龍, <杜審言詩三題>, 《江蘇廣播電視大學學報》, 1996年, 제471.
- 陳冠明, <杜甫詩年譜>, 《杜甫研究學刊》, 2001年, 第3期
- 許總, <論杜審言詩歌藝術特徵與美學格調>, 《寧夏大學學報》, 1997年, 第3期
- 許總, <論文章四友與唐前期詩歌藝術進程>, 《中州學刊》, 1994年, 第6期
- 朱學東, <少陵家法與唐詩研究>, 《杜甫研究學刊》, 2002年, 第2期

<中文提要>

在唐詩學界, 對於初唐向盛唐詩風演進的過渡階段, 注意比多的是四傑, 沈宋, 陳子昂等人, 而對文章四友及其代表杜審言則重視不夠。實際上, 文章四友在促進唐前期詩風演化的過程中影響甚大, 而杜審言的成就尤為顯著。首先, 他的詩歌內容除了少數應制詩以外, 或抒發個人失意之情懷, 或描寫山水自然之情景, 或描寫邊塞征戍等, 大部分已擺脫初唐詩宮廷詩的界限, 而更為接近盛唐之詩歌。尤其, 其渾厚有餘之風格亦初步展示了盛唐之音。其次, 作為沈佺期、宋之間之前導, 杜審言在律詩格式的定型化方面的作用與貢獻是顯著的。杜審言創作新體詩在既存詩總數中比率極高, 43首詩中新體詩為41首, 比例高達95%。而且他的詩作在格律的精密化方面達到了當時的最

高水平. 最後, 對於杜審言給杜甫律詩形成的影響也不能忽視. 換言之, 杜甫在‘詩句’, ‘詩法’, ‘語脈’上都吸收了乃祖的創作成就. 總之, 杜審言的詩歌在中國詩歌史上占有着不可忽視的地位.

關鍵詞: 杜審言, 詩歌, 初唐, 律詩, 杜甫